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562-404-0027)로 알려주세요.

종교

## 회장·이사장 이취임 예배 OC기독교장로협의회

오렌지카운티(OC)기독교장로협의회(회장 김생수)는 제8대 회장 및 이사장 이취임식 감사예배를 지난 13일 남가주동신교회(담임목사 백정우, 2505 Yorba Linda Bl., Fullerton, CA 92831)에서 드렸다.

김생수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순종하여 나가는 장로협의회,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는 장로 협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과 미자립교회를 돋는데 힘을 합쳐 일하자.”고 말했다. 정재영 신임 이사장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여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장로 협의회가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전했다.

장로협은 지난 2014년 OC의 10여 개 한인 교회 장로 20여 명이 모여 창립했다. 회원간의 친목을 다지는 한편, 미자립 교회를 돋고 있다. 펜데믹 기간 중에도 해외 선교사와 전도사 지원, 선교지 주민 마스크 구입 지원, 선교사 자녀 장학금 지급 등의 봉사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현재 53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김 회장은 “회원이 배로 늘면 봉사 규모도 커질 것”이라며 OC지역에 거주하는 장로들의 회원 가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문의: (714) 402-8490

## 무료 코로나19 검사센터 운영 나성한인교회

나성한인교회(담임목사 신동철, 2241 N. East-West Ave., LA, CA 90032)는 LA 시와 공동으로 커뮤니티를 위한 무료 코로나19 PCR 검사센터를 운영한다.

검사 센터는 2월14일(월)부터 3월11일(금)까지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부스는 나성한인교회 주차장에서 설치된다. 결과는 검사 후 이를 안에 통보한다. LA 시 관계자는 “나성한인교회의 지원으로 커뮤니티를 위한 검사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 문의: (323) 221-9531

## 라인댄스 초,중급 반



활기찬 인생을 위한 건강한 춤!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 시간

매주 수~목~금요일  
오전10시30분

☎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



## 남의 허물을 꾸짖기 전에 자기 잘못 먼저 살펴야



우리 스님네들이 일상에서 제일 처음으로 배우는 <초발심자경문>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부처님께서는 ‘큰자는 형으로 삼고, 작은자는 아우를 삼으라’, ‘높은 소리로 침뱉지 마라’, ‘웃깃을 헤치고 팔을 흔들고 돌아다니지 마라’, ‘병든 사람이 있거든 자비한 마음으로 간호를 잘 해라’, ‘음식을 먹을 적에 짭짤 음식 씹는 소리, 후루룩 물마시는 소리를 내지 마라’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결론적으로 ‘자기 몸 가운데 잘 못됨을 항상 꾸짖고 고쳐 착한 데로 옮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8만대장경의 ‘율장’에는 ‘자기의 잘못을 먼저 살피고 다른 사람의 흉을 보지 마라’고 했습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는 사람의 허물은 열 가지도 넘기 마련입니다. 자기 허를 없는 사람은 남의 허물을 입에 담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유팔은 불문에 귀의했을 때 오계(五戒)를 설해줍니다. 오계는 ‘산 목숨 죽이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술마시지 마라’는 것으로 이것은 전체 윤리·도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엄경에서는 ‘동업중생’ 화엄경에 “일체중생의 뜻을 거스리지 아니하고 일체중생의 속원하는 바를 따라 베풀어 주는 것이 가히 다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남을 위해 베푼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혐악한 세상을 풍요롭고 따뜻한 세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실천을 하고 있습니까? 행하려고는 아니하고 욕심 보파리만 안고 있진 않습니까? 마음 그릇을 먼저 비워야 물건이 담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너희들이 극락을

가고자 한다면 욕심부터 버려라. 성불을 하고자 하면 욕심을 버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8만대장경의 ‘율장’에는 ‘자기의 잘못을 먼저 살피고 다른 사람의 흉을 보지 마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목숨이 짧은 사람은 죽어가는 목숨을 살려주면 네 목숨이 길어질 것이다. 병든 자를 구완하면 네 병이 없어지고 건강해질 것이다. 복이 없는 자는 복덕 종자를 심어 베풀어라. 베풀면 온다. 결과의 열매를 스스로 거둔 것이다”고 윤리·도덕의 실천을 말씀 하셨을 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복도 주고, 명도 주고, 모든 것을 나눠 주리라’처럼 ‘온다, 준다’는 요행의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달라’고 소리하는 사람만 많고 부처님 말씀을 듣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적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법문을 실천하려 하지 않고 ‘그냥 하는 말이다’ 라며 지나치지는 않습니까? 설령 그렇다고 한들 악한 사람보다는 착한 사람이 더 많은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이 조금 더 신경 써 악한 몇몇 사람을 교화시키면 이 사회는 밝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행하는 사람이 윤리도덕을 제대로 행하

는 사람이고 참다운 불자가 되는 길입니다.

부처님 법에는 발로참회라는 것 있습니다. 드러낼 것을 확 드러내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발로참회입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살 때 집안이 화평하게 됩니다.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세상이 확 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상을 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반조하지 아니하면 경을 아무리 봐도 이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진리를 실천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이 그릇된 세상을 바로 잡을 이는 부처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사회를 부처님 법으로 밝히지 아니하면 영영 이 세상을 밝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법문을 듣는 여러분이 바른 소리만하고, 부처님 법을 전달하며 사세요. 그것이 부처님 뜻을 이어 이 세상을 밝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을 밝히는 선구자가 돼야 하고 인도자가 돼야 합니다. 이 세상에 나신 것은 그나름대로 다 뜻이 있어 나셨을 테니까요.

-고산 스님-

## 숨은그림찾기 정답

